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5 2022 SEPTEMBER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이웃의 삶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기초 생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생계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아동의 결식과 노인의 영양 결핍을 예방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 구호하거나 전쟁 난민을 돕는 일에도 함께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023억 원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2
09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삶

동해시 1호 부부 아너로
새롭게 시작하는
추암횃집대게 박은주 대표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5 2022 SEPTEMBER

사랑의열매

이웃의 삶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기초 생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생계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아동의 결식과 노인의 영양 결핍을 예방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 구호하거나 전쟁 난민을 돕는 일에도 함께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023억 원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2
09



지역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나눔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동시 가입한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3인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5 2022 SEPTEMBER

사랑의열매

이웃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기초 생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생계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아동의 결식과 노인의 영양 결핍을 예방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 구호하거나 전쟁 난민을 돕는 일에도 함께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023억 원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2
09

서로 돕고 나누는 삶에 대하여

세종시 여성 아너 1호
성원벤처메디칼(합)
이숙우 이사의 나눔 이야기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5 2022 SEPTEMBER

사랑의열매

이웃의 삶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기초 생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생계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아동의 결식과 노인의 영양 결핍을 예방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 구호하거나 전쟁 난민을 돕는 일에도 함께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023억 원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2
09



제주를 지키는
향토 기업의
따뜻한 해안

제주 사랑의열매의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그램
나눔선도기업 1호 (주)한라산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nurse0904



지난 1일부터 88시간 사전 플라스틱 소비량을 확인한 후 사후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진행해보았어요. 사전 플라스틱 소비량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은근 많더라고요. 이후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려고 신경 썼더니 소비량이 좀 줄었어요.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이 될게요. #플라스틱_다이어트 #탄소중립 #실천 #탈플라스틱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금융그룹 #사랑의열매

universe7do



10만 원 기부 플렉스! 보육원에도 정기 후원 시작, 시계랑 NFT 감사합니다. #내돈내기부 #첫보너스로 #직장인버킷리스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열매둥이 #NFT #minigold #혜명보육원 #기부 #나눔 #기부니조크드요

juhyun_kim_pi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클라우드펀딩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천 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천 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한 명의 나눔이 다른 사람의
나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현영



방송인 현영님은 2006년 3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다양한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현영님은 2009년 12월 방송인 최초로 사랑의열매 고객 기부자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자선 바자회 등을 통해 이웃을 위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고, 2019년에는 '착한가정'에 가입하면서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5 2022. 09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동해시 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동해 추암회집대게 박은주 대표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9월 / 통권 185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사랑의열매가 이웃의 삶을
튼튼하게 지킵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금융 취약 계층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대출 지원해준 '사랑의 금융119'

14

내 인생의 한마디

남양주 3호 아너
(주)LK베이크웨어 이재형 대표

18

나눔 이슈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의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국내 기부자와의 만남 그리고 인터뷰

22

착한 열매슬랭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부산 맛집

26

착한기업

국내 최대 친환경 민간 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

30

사랑더하기

20번째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

32

클라우드펀딩

휠체어·보조 기기 이동 서비스 차량
개선 지원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강원·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5 2022. 09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김동수 산악회장, 김창균 회장, 이수계 부회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9월 / 통권 185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사랑의열매가 이웃의 삶을
튼튼하게 지킵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금융 취약 계층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대출 지원해준 '사랑의 금융119'

14

내 인생의 한마디

남양주 3호 아너
(주)LK베이크웨어 이재형 대표

18

나눔 이슈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의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국내 기부자와의 만남 그리고 인터뷰

22

착한 열매슬랭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부산 맛집

26

착한기업

국내 최대 친환경 민간 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

30

사랑더하기

20번째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

32

클라우드펀딩

휠체어·보조 기기 이동 서비스 차량
개선 지원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5 2022. 09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세종시 여성 1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성원벤처메디칼(합) 이숙우 이사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9월 / 통권 185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모두의 나눔

사랑의열매가 이웃의 삶을
튼튼하게 지킵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금융 취약 계층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대출 지원해준 '사랑의 금융119'

14

내 인생의 한마디

남양주 3호 아너
(주)LK베이크웨어 이재형 대표

18

나눔 이슈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의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국내 기부자와의 만남 그리고 인터뷰

22

착한 열매슬랭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부산 맛집

26

착한기업

국내 최대 친환경 민간 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

30

사랑더하기

20번째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

32

클라우드펀딩

휠체어·보조 기기 이동 서비스 차량
개선 지원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세종·대전·충북·충남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

vol. 185 2022. 09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4대(代)째 향토 기업 명맥을 잇는
(주)한라산 현재웅 대표이사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9월 / 통권 185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사랑의열매가 이웃의 삶을
튼튼하게 지킵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금융 취약 계층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대출 지원해준 '사랑의 금융119'

14

내 인생의 한마디

남양주 3호 아너
(주)LK베이크웨어 이재형 대표

18

나눔 이슈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의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국내 기부자와의 만남 그리고 인터뷰

22

착한 열매슬랭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부산 맛집

26

착한기업

국내 최대 친환경 민간 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

30

사랑더하기

20번째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

32

클라우드펀딩

휠체어·보조 기기 이동 서비스 차량
개선 지원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제주·광주·전북·전남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가 이웃의 삶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취약 계층 이웃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우리 이웃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글 이선희 사진 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흥



취약 계층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립·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 사업 '행복채움 36.5°C'

경기 서부권역의 북한이탈주민 인구수를 보면 부천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부천시 범안동에는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해 이들을 위한 정서적·환경적 안전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 이에 범안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사랑의열매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발굴해 이들을 위한 생계비·의료비 등 기초 복지를 지원하며, 사례 관리를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유관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올바른 자립과 성장을 돕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은 행복상자 키트 2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체결한 업무 협약 3 가정방문 상담 모습 4 직접 발로 뛰며 행복채움 36.5°C를 알리는 사례 발굴단



저소득 노인 및 노숙인의 영양 공급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

1993년 보리 스님이 원각사10층석탑에 참배하러 갔다가 탑골공원에서 배 굶는 노인을 만났다. 그때 탁발해 모은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그 노인에게 건넨 것이 오늘날 원각사 무료 급식소로 이어졌다. 현재는 사회복지원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자만 230~280명으로 1년 동안 약 8만 명이 이곳에서 건강한 한 끼를 제공받는다. 이용자 대부분은 저소득 노인이다.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 다른 급식소에 비해 고정적으로 찾는 이용자가 많다.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재정이 여유롭지 못해 고민하던 중 2018년부터 삼성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게 됐다. 덕분에 식단 운영은 물론, 봉사자 교육까지 진행하며 한층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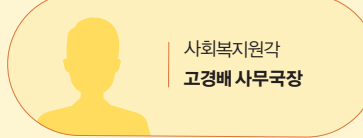


1 배식 봉사를 돕는 밥퍼 봉사자들
2 매일 230~280명이 찾는 무료 급식소



2

Mini Interview



사회복지원각
고경배 사무국장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식소 운영에 변화가 있었을 듯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실내 급식을 하지 못했고, 대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두려움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았죠.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잠시 실내 급식을 했다가 다시 대체식으로 바뀌는 등 상황에 따라 급식 형태를 바꿔 운영하는 중입니다.

삼성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식단 관리와 급식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예전에는 후원 물품과 동네 식재료 가게에서 식품을 조달해 식단 관리를 체계적으로 못 했습니다. 삼성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식단과 고른 영양을 갖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밥퍼 봉사를 하시는 분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요? 봉사자와 후원을 10년 넘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중 초기부터 함께하신 여의심 보살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무료 급식소를 잘 지켜달라며 당부하신 게 기억납니다.

사업 진행 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나요? 첫째는 친절입니다. 봉사는 내가 스스로 어르신을 위해 받들고 모시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는 어르신께 지시나 강요를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는 청결한 음식입니다. 그날 배급하는 음식은 당일 아침에 조리해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취약 계층 생계 지원 미래 세대 희망 나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임신·일용직 근로자 78만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취약 계층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것은 물론,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이웃도 늘어났다. 또 학습 공백으로 아동·청소년이 심각한 학력 격차를 보이는 등 코로나19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부스리기사랑 나눔회는 인동FN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138가구에 위기·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가계 고정 지출인 생활비·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기본 생계비를, 전세금·의료비 등 고액 지출이 필요한 경우엔 긴급 생계비를 전달하는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었다.

1 가정방문 모니터링 시 아동들에게 선물하는 케이크. 깜짝 선물을 받은 아동들이 기뻐하는 모습 2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며 생활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강북구청에서 인동FN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Mini Interview



부스리기사랑나눔회
강보경 팀장

기본 생계비 지원에 교육비를 포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소득 가정 아이들은 공교육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의 학력 격차

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순 생계비를 넘어 교육비까지 지원한 이유죠.

생계비 지원과 함께 가정방문 모니터링 까지 시행했다고 들었어요. 138가구를 지원하며 방문 모니터링과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드러나지 않은 가정 내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또한 이를 통해 후원금의

지원과 사용이 개별 가정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동과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걸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에 후원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취약 가정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시 회복해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이룬 부분이 있다면요? 첫 번째로, 긴급생계비와 기본 생계비로 나누어 지원한 것입니다. 긴급 생계비를 일시 지원해 아동학대로 손가락이 골절된 아동에게 뼈 이식 수술을 진행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생계비는 10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특정 항목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학원을 계속 다니며 전교 1·2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아동부터 몸에 맞는 옷과 신발을 구매해 자신감이 향상된 아동까지 다양한 사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및 그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희망나눔'과 같이 개별 아동 사례별 필요에 맞춘 생계비 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금융 취약 계층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대출 지원해준 '사랑의 금융119'

“금융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다시 계획해봅시다”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사랑의 금융119' 사업이 마무리된다. 금융 취약 계층에 삶의 재할 의지를 다시금 선물하며, 금융 연대를 통한 복지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글 강은진 사진 김기남,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가정까지 파괴하는 돈 문제

지난 3년간 진행한 '사랑의 금융119'(이하 금융119)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된다. 지난 2019년 10월에 시작한 금융119는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 컨설팅 및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 (이하 사회연대은행)이 시행해왔다. 사실 복지와 금융은 익숙한 조합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꼭 필요한 조합이 되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위험 수준을 넘은 상황. 게다가 하위 20% 저소득층은 2018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84만 1,20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7,368원, 즉 27.9%나 줄었다. 하지만 이자 비용은 58.3%로 경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실업, 의료, 이사 등 다양한 긴급 자금이 발생할 경우 대출로 충당한다. 이러한 과다 대출 때문에 저신용자로 전락해 고금리 대부업체 쪽으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것. 수입은 줄고 빚과 이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져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른다.

결국 금융으로 해결 실마리 찾아야

복지의 기본은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가족, 가정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된 삶의 지속일 것이다. 한 달 수입 100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인 가정, 위기 가정

PLUS INTERVIEW

“컨설팅의 핵심은 재무 행동 변화죠!”



사랑의 금융119
임주환 재무 컨설턴트

금융권 출신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돈은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해준다. 금융을 통해 이웃의 삶을 점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사업 취지가 너무 좋아 참여하게 됐다.

대출 심사 전, 의무적인 재무 컨설팅이 인상적이다. 상환 능력과 의지를 중요하게 본다. 단순히 돈을 갚는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119 대출 조건 충족하는 분은 사실 거의 없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소득을 늘릴 것인지, 지출을 줄일 것인지도 살피며 재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다.

재무 컨설턴트로서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 저축은 좋은 거라 막연히 생각만 하다 구체적으로 저축의 목적을 깨닫고,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볼 때다. 신청자들은 대개 수급비로 생활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한 달 몇만 원 저축은 비상한 결심이 필요한 일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1



2

등 중위 소득 80% 이하의 취약 계층이 처한 금융 위기 상황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금이나 이벤트성 물품 지원으로는 일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금융 문제이기에 금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런 현실 인식에서 시작한 게 '사랑의 금융119' 사업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퍼주기 식의 금전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금융 119 사업의 핵심은 대출 이전에 신청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재무 컨설팅 교육에 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통해 신청자는 수입과 지출, 자

산과 부채 등 재무 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재무 목표를 세우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자에게 한도 500만 원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 성공, 재무 컨설턴트 역할 커

금융119 사업 성공은 재무 컨설턴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단순 빚 탕감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핵심은 문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개인의 의지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인식 변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선(先)대출 후(後)사후 관리가 아닌 선재무 교육 후대출 방식을 택했다. 재무 컨설턴트는 은퇴 금융인이 봉사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 위기에 처한 중위 소득 80% 이하 취약 계층 신청자를 직접 만나 재

1 봉사자들이 모여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성과를 보인 금융119 재무 컨설턴트 FGI 인터뷰 현장 2 금융119 대출을 통해 과일청 사업을 시작한 신청자가 보내온 감사 편지와 딸기홍초 3 금융119 재무 컨설턴트 선포식 및 수료식 4 신청자를 만나 직접 면담 중인 재무 컨설턴트



3

무 상태를 확인하고, 대출 심사뿐 아니라 상환 계획이나 능력까지 살피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부터 개인 회생, 취업 교육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과 교육을 제공했다. 금융119의 처음 상환율 목표는 70%였으나, 현재 86%를 상회한다. 비슷한 기관의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로, 모두 재무 컨설팅 과정에서 충분히 재활 의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금융119 사업은 우리 사회에 복지를 위한 금융 연대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



4

SPECIAL INTERVIEW

“돈 문제가 곧 삶의 문제, 금융 통해 인생 재점검 기회 제공”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신혜영 팀장

원의 대출이 일반인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액이 되기도 한다.

금융119 사업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아무래도 컴플레인 이 가장 심한 사업이라는 점일 것이다. 정말 돈이 급한 분들에게 대출을 거절했을 때 일반 금융권과는 달리 강력한 항의를 받는다. 특히 신청자를 직접 만나 재무 컨설팅을 진행하신 컨설턴트님들의 고충이 심하다. 그래도 힘든 내색 안 하고 3년간 봉사해주셔서 정말 고맙다.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3년간 사업을 진행했다. 혁신 사업으로 10억 원을 배분받았다. 10억 원이면 정말 규모가 큰 거다. 금융의 사각지대라는, 아직은 생소한 복지 영역까지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건 말 그대로 혁신이다. 많은 분이 새 삶을 찾을 수 있었다.

금융 복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사회연대 대표님이 신용 평가사 KCB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10단계의 신용등급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현직에 계실 때부터 느끼고 사회연대은행으로 오셨다. 금융과 삶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아줄 수 있는 금융도 사회적 연대가 꼭 필요하다.



복지와 금융의 만남이 익숙하지 않다. 인식의 변화 없는 금전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재무 컨설팅을 통해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들여다보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후 돈을 빌려준다. 금융119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출이 아닌, 신청자가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범 사례를 소개해달라. 한부모 가정의 자녀이자 미혼 모인 신청자가 있었다. 우리 재무 컨설턴트님과 상담을 통해 재무 컨설팅 교육도 성실히 잘 받고, 대출은 물론 취업까지 잘 이어졌다. 지금은 나에 입주해 한층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다. 한도 500만



남양주 3호 아너, (주)LK베이커웨어 이재형 대표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베이킹 조리 기구를 생산·수입하는 LK베이커웨어의 비전은 ‘항상 고객에게 정직으로 다가서는 기업’이다. 이재형 대표는 정직을 사업 철칙으로 여기며 LK베이커웨어를 업계 최고 수준의 강소기업으로 키워냈다. 글강보라 사진장은주

올해로 창업 18년 차인 이재형 대표는 자수성가한 대표 인물이다. 그는 “지인 사무실에서 더부살이 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사람이 아너 회원까지 됐으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한다. 맨 손으로 출발해 정직과 신용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쓴 세월이었다.

창업 자금 150만 원에서 97억 원 매출의 강소기업이 되다

이재형 대표는 증권맨 출신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격탄을 맞았다. 베이커리업계 영업맨으로 전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출고 배고픈 시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사람’이었다. 150만 원으로 창업을 했을 때 거래처에서는 그동안 쌓은 신용 하나로 그에게 외상을 줬다. “그분들이 뭘 믿고 외상을 주셨겠어요. 영업맨으로 활동할 때 정직하지 않았다면 꿈도 못 꿨을 일이지.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제 사업의 밑천이며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얻을 돈이 없어서 지인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최소한의 물건 대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많은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어려운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죠.”

LK베이커웨어는 업계에서 불량 제품 반품률이 적은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눈속임 없는 정직한 제작과 꼼꼼한 검수를 생명으로 여기며 실천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조잡한 저가 제품이 판을 치는 베이킹 시장에서 ‘LK베이커웨어 제품’이라면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쌓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질 높고 탄탄한 제품력과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철학이 뒷받침됐기에 97억 원 매출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동경의 대상이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재형 대표는 평소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를 '동경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한다.

“고액 기부자 모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늘 허덕일 때라 아너 가입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기에 1억 원이나 기부를 할까?’ 싶으면서 다른 세상처럼 동경하는 마음이 들었죠. 언감생심 제가 회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웃음)”

이후 일시납 외에 5년 약정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너 가입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입 문의를 했다.

“자산이 많다고 나누는 마음이 커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자산가가 즐비한 행사장에서 아너 회원으로 소개되며 존경의 박수를 받은 적도 있다.

“자산이 넘쳐나도 기부를 하겠다며 선뜻 나서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너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재형 대표는 나누려는 마음이 큰 사람이어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도 그런 생각으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함께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기부도 가능했습니다. 취지를 공감한 직원들이 흔쾌히 동의 해주어 아너 기부도 시작할 수 있었죠.”

아너 가입 이후 개인 기부를 시작한 직원도 있어서 내심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청소년의 꿈에 투자하는 비행기 장학회

이재형 대표는 아너 회원이기 이전에 청소년을 지

원하는 비행기 장학회의 회장이다. ‘비(飛)전을 가지고 행(行)동으로 옮기면 기(奇)적이 이루어진다’는 철학으로 11개 기업이 뜻을 모아 장학회를 운영 중이다. 2012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총 804명의 장학생에게 10억 1,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76명의 장학생에게 1억 2,1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행기 장학회의 선발 기준은 ‘꿈을 가진 청소년’이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 중에서 스스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며 노력하는 학생들을 후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성적 우수자를 지원하는 일반 장학회와 달리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학생 모두를 응원한다.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미용 학원을 다니는 학생부터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며 컴퓨터 학원을 다니는 학생까지 자신만의 꿈과 개성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학력 위주에서 능력 위주의 인재 채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비행기 장학회를 운영하며 가슴을 울리는 편지도 많이 받았다. 최근에는 학부모를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 받았다. A 학생의 어머니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무작정 친정이 있는 남양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이후 비행기 장학회의 도움으로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움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정서적 금수저’로 열심히 키워보겠다는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한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무척 기뻐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라서 또래 아이들만 봐도 흐뭇한 마음이거든요.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LK베이크웨어는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이다. 대학생 등록금을 학기당 200만 원씩 조건 없이 지급하고, 첫째 아이 출산에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재형 대표의 철학을 반영한 복지 제도이다.

“요즘은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쉽지 않으니 출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만든 제도입니다. 큰 도움은 아니라도 모두가 힘을 모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형 대표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믿는다. 양극화에 대한 해답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사람은 너무 어렵고, 잘사는 사람은 너무 잘살잖아요. 기부를 통해 위에서 아래로 자발적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요?” 기부를 하면 기분이 좋으며 기부를 ‘기분 좋은 소비’로 정의하는 이재형 대표.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의 기부 철학이 더욱더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사람이 기적의 소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 이재형 대표는 LK베이크웨어 성장의 일등 공신으로 직원들을 꼽는다. 성실하고 정직한 이들이 있었기에 더부살이하던 사무실에서 지금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국내 기부자와 만난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사회적 가치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는 나눔문화 인상적”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nited Way Worldwide, UWW)의 안젤라 윌리엄스(Angela F. Williams) 회장이 지난 7월 11일 사랑의열매 방문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국내 다양한 기부자와 만나며 기업의 사회 공헌과 ESG 경영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 임수길 센터장(왼쪽)과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SK그룹

7월 11일 오후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은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 임수길 센터장과의 만남에서 지속 가능성의 화두인 ESG 경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SK그룹은 2016년 이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 철학이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문화에 반영되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비즈니스 모델을 석유화학 기반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은 “SK그룹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 문화와 활동에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에 열린 ‘CES 2022’에서 관람객 기부로 조성한 1억 원을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에 사용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여성 인권 강화에 힘쓰는 CJ그룹

12일에는 CJ그룹 민희경 부사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CJ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과 CJ나눔재단,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다. CJ그룹은 교육과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주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 방법으로 장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희경 부사장은 “현재 CJ그룹은 베트남 여성의 인권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업을 베트남의 더 넓은 지역사회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은 유나이티드 웨이 베트남을 훌륭한 현지 파트너로 추천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사랑의열매와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는 유나이티드 웨이 베트남과 CJ그룹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

한편 사랑의열매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 1호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과와의 만남에서는 고객 자산가와 자선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봉진 의장은 빌 게이츠를 포함한 다른 자선가를 만난 기빙 플레이 연례 회의에서 영감을 받아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은 “김봉진 의장은 다음 2~4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자선사업가”라며, “향후 김 의장이 자선가들을 초대해 라운드테이블(참가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회의)을 주최하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1 CJ그룹 민희경 부사장과와의 만남 이후 찍은 기념사진
2 자선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앞줄 오른쪽)

“글로벌 위기에 나눔의 역할 더 중요해져”

지난해부터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를 이끌고 있는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최근 팬데믹과 전쟁 및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세상을 낙관한다. ‘인간에겐 나눔을 돕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출처 한겨레 취재 이준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녹취민수민 보조연구원 사진 김정호 기자 정리 이선희

—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과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인간에겐 선한 본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TV에서 코끼리를 살리자는 캠페인 광고를 보고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 엄마에게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나만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웃음) 사람에게선 나눔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본능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에서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자 어린이들이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많은 성인도 비영리 기관 같은 단체에 기부를 했고요.

한국도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합니다. 기부가 이런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부 프로그램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이가 많습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면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 ‘번영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노숙자나 실업자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자산가들의 고액 기부를 통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선 기부보다 증세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럽은 기부보다 세금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정부가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간



에서 사회의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과 기부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 중에는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면서 그보다 훨씬 적은 기부를 통해 생색을 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다른 계층 사람들과) 공유하며, 서로 교류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동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의지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부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세상을 절망적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우리는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자원을 동원해 사회 안전망을 새롭게 만들어나는지 목격했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함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고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이 직접 아너 소사이어티를 소개했다.
2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한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맛으로 멋으로 문전성시 이루는 착한가게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부산 맛집

맛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바로 부산이다. 지방색이 가득한 향토음식부터 트렌드를 이끄는 새로운 음식까지, 미식의 도시로 떠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사랑의열매



맛과 멋의 차(茶), 예원당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33 ☎ 051-819-0445

☎ 화~일요일 11:00~22:00(월요일 휴무)

차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찻집이다. 1997년부터 중국, 대만, 홍콩 등을 누비며 최고의 차와 차 도구를 소개하는 편집숍으로 시작했기에 모든 종류의 차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웬만한 단행본 뺀치는 메뉴판에는 차종류는 물론, 맛과 효능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일반부터 중급·고급·시세로 마시는 극품까지 다양한 등급의 보이차, 세작·우전·재스민 등 비교적 익숙한 녹차,



아마란스·생강나무꽃·매화·목련 등 이름부터 향기로운 꽃차까지 체험 박물관급으로 준비돼 있다. 녹차 브라우니, 홍차 브라우니, 떡 와플, 얼그레이 타르트 등 차에 곁들이기 좋은 디저트도



수준급이다. 특히 1인 8,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세트가 인기. 라탄 바구니에 예쁜 돛자리, 차와 티포트, 잔과 보온병, 쿠키, 꽃까지 잡지에 나올 법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줄 서는 맛집, 백두봉 삼계탕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714-1
☎ 051-266-1023 🕒 매일 10:00~22:00

부산 대대포해수욕장에 위치한 백두봉 삼계탕은 부산을 대표하는 삼계탕의 명가다. 크고 넓은 현대식 매장에는 늘 손님들로 북적인다. 상호처럼 대표 메뉴는 삼계탕이다. 살아 있는 전복이 들어가는 전복삼계탕, 고소하고 녹진한 들깨삼계탕, 보신하기 좋은 옷삼계탕까지 건강을 위한

한 그릇이 푸짐하다. 김치겉절이와 깍두기, 오이초무침, 계절에 따라 배추전이나 호박전 등으로 구성되는 밑반찬이 아주 맛깔나다. 특히 김치겉절이는 마니아가 있을 정도. 식전 인삼주와 닭똥집볶음도 기본 서비스로 제공한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는 완벽한 삼계탕 한 상 코스다. 1시간 전에 미리 사전 예약하면

옷이나 능이를 넣은 토종닭백숙과 오리백숙도 즐길 수 있다.



예쁘고 맛있고, 보소보소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0
☎ 0507-1331-6157 📷 @bosoboso_bakery
🕒 화·수·금·일요일 12:00~20:00(월·목요일 휴무)



이미 부산을 넘어 전국구 유명 수제 소보로 맛집이다. 친절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장님이 매일 새벽 직접 반죽을 만들고, 당일 생산 원칙을 고집스레 지켜가며 빵을 굽는다. 귀여운 상호처럼 버터 소보로와 우유 생크림 소보로가 대표 메뉴다. 따뜻한 빵에 차가운 버터 한 조각의 조합은 천국 그 자체. 우유 풍미 가득한 생크림도 진하다. 무염 버터와 게랑드 소금,

씹을수록 쫄깃한 빵피의 어우러짐이 좋은 소금빵도 금방 동나는 인기 메뉴다. 이 밖에도 옥수수가루와 알갱이가 듬뿍 들어 있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콘브레드, 국내산 꿀과 다진 마늘을 넣은 마늘 스크, 파인애플을 직접 쪄낸 만든 대만식 쿠키 핑리수까지 정성 가득한 빵이 가득이다. 커피와 밀크티도 판매한다. 빵 나오는 시간이 다르니 방문 전문의하자. 🍷





— 민자 발전회사 최초로 나눔명문기업 경남 제9호로 가입한 고성그린파워

국내 최대 친환경 민간 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

세상의 빛으로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발전설비인 고성하이화력을 보유한 고성그린파워의 '빛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비전에는 청정에너지 생산과 사회 기여에 대한 의지가 잘 담겨 있다. 글강보라 사진 (주)고성그린파워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고성그린파워는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 협력'을 주요 가치로 삼고 설립 초기인 2015년부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해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단체 등을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로, 이웃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고성그린파워 김학빈 대표는 "하나를 베풀면 만 배를 얻는다는 말처럼 작은 실천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감과 함께 나눔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나눔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으로 주거 안전의 빛이 되다

고성그린파워와 사랑의열매의 본격적인 인연은 2016년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도내기업, 사랑의열매가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고성그린파워는 2020년까지 5년간 2억 5,000만 원을 기탁해 현재 저소득층 385동의 슬레이트

Before



After



—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으로 지역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붕을 컬러 강판으로 개량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 개선과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을 사용한 건축자재로, 과거 지붕의 주재료로 널리 쓰였다. 문제는 내구 연한인 30년이 지나면 석면이 날리며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 물질이 된다는 것. 석면 가루는 폐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지 않고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철거에도 전문 인력과 많은 비용이 들어 저소득층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고성그린파워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 있었기에 철거 비용 부담을 덜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었다. 이처럼 생활과 밀접한 상생 협력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함에서 나온다.

국산수산물 착한소비로 지역 상생을 이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점차 늘고 있다. 최근 국내 어업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 수입 수산물 증가 등의 악재가 겹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기존에 추진하던 소비 촉진 행사는 일시

적 효과에 그쳐 어려움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상남도는 소비자가 먼저 국산 수산물을 찾도록 해 국산 수산물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늘리고 국내 어업을 살리자는 취지로 착한소비 운동을 추진했다. 이 취지에 공감한 고성그린파워는 소비자가 먼저 찾는 '국산 수산물 착한 소비' 운동에 참여해 제수용 국산 수산물 구입에 나섰다. 고성군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제수용 국산 수산물 꾸러미 750세트를 구입해 국내 수산물 착한소비를 시작한 것. 추석을 맞아해 취약 계층에 제수용품을 전달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식생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남해안 청정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은 품질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다. 고성그린파워는 국산 수산물 착한소비 활동을 시작으로 우수한 국산 수산물이 더 널리 알려지도록 임직원들에게도 구입을 독려하며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했다.

지역 인재 키우는 장학 지원으로 미래를 밝히다

고성그린파워는 지역 인재를 키우는 장학 지원에도 열심이다. 2016년부터 장학 재단을 통해 매년 1억 원 이상의 장학 기금을 기탁 중이며, 이주민 자녀 장학금과 IT 기기 지원 등 열악한 농촌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

사천 여자 농구의 명성 뒤에는 고성그린파워의 꾸준한 지원이 있다.



다. 특히 사천시, 사천교육지원청과 '민·관·학 협력 교육 및 학교 체육 장학 사업' 협약을 맺고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농구 인재육성 장학금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구 도시 사천의 명성을 이어가는 삼천포여자 중·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에는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유도부에도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체육 인재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김학빈 대표는 "지역의 체육 인재 육성이 체육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며, 앞으로도 사천시 학교 체육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국체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는 모든 선수를 위해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성그린파워의 후원은 실제 좋은 결과로도 이어졌다.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47명의 사천교육지원청 선수단이 육상·수영·유도·태권도·복싱·농구 등 6개 종목에 출전해 금 2, 은 1, 동 3 등 총 6개 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이러한 체육 지원 외에도 삼천포 지역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통학 버스 후원에도 나서 안심 귀가 보장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통학 버스 운영은 야간 학습 등으로 늦게 귀가할 때 생길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위험을 크게 줄여 삼천포 지역 여학생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다

고성그린파워는 이웃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사회 공헌을 지향한다. 일상을 수호하는 파수꾼에 가까운 활동이다. 홀몸 어르신 150가구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랑나눔 반찬 배달'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는 봉사로, 이웃들의 끼니를 챙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다. 연말에 이루어지는 김장 김치 나눔도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무더운 여름에는 취약 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해 가스 안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고성그린파워 직원



가정으로 찾아가는 '사랑나눔 반찬 배달'은 코로나19의 위기를 타파하는 봉사로 인기를 끌었다.



고성그린파워는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록 가정용 냉풍기 100대(1,0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스 사용시간을 설정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중간밸브가 잠기며 가스공급을 차단해주는 장치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화재사고 예방에도 보탬이 되었다. 특히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향토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그린파워 김학빈 대표이사는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며 전 임직원 모두가 노력

하며 ESG경영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역상생을 위해 사랑의열매와 함께 맞춤형 사업을 위해 더욱 고민하여 사회공헌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생활 밀착형 지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바탕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에 누구보다 앞장섰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경상남도에 퍼지는 사회적 나눔의 긍정 변화는 고성군에서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그곳에 고성그린파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20번째 '사랑더하기' 거리 공연 모금 중인 가수 박상민과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기순

20번째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으로 3,681만 원 전달

“사랑을 더하는 거리 공연은 계속됩니다!”

박상민과 황기순이 이웃을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재개한 '사랑더하기' 현장 모금 캠페인. 글강은진 사진박충렬

— (주)남대문시장 상인회, 상인연합회 등 남대문시장의 상인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2년 만에 재개한 '사랑더하기'

올해로 20회를 맞은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8월 18일부터 4일간 서울 남대문 삼익패션타운과 인천 월미도 공연장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2년 만에 재개해 더욱 뜻깊었다. 사랑더하기는 지난 2000년 개그맨 황기순 씨가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돌며 모은 성금으로 휠체어 52대를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가수 박상민 씨 등 많은 연예인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으며, 자전거 국토 대장정과 길거리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장 모금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랑더하기 행사에는 가수 박상민 씨를 중심으로 가수 소명, 요요미, 박상철, 최세연 등과 개그맨 동료들의 재능 기부가 더해졌다. 또 이번 행사는 사랑더하기 20회 공연을 기념해, 거리 모금을 종료한 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부를 함께 진행 중이다. 행사 배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모금은 8월 31일까지 진행했으며, 휠체어 지원을 위해 한벗재단과 함께하는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https://together.kakao.com/>

fundraisings/99216)은 10월 17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거리에서 모아준 3,681만 원의 성금

8월 2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랑더하기 모금함 개봉과 함께 성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기순 씨와 기부자 대표로 다비치안경 김진호 고문, 한국국제물류협회 배경환 부회장,

서울NGO 멋진사람들 배희숙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번째 사랑더하기에서는 총 3,681만 6,570원을 모금했다. 이번 성금은 장애인 휠체어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의료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20년간 모금한 성금 누적액은 약 6억 원에 달한다. 황기순 씨는 “매년 박상민 씨와 함께 동료·후배 연예인들에게 참여 독려 연락을 보내는데, 선뜻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에 폭우와 폭염까지 겹쳐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사랑더하기 행사로 나눔문화의 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은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정비한 사랑더하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쳐, 두 분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



“거리 모금을 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큰 보람과 감동을 느껴요. 체력이 허락할 때까지 사랑더하기는 계속할 겁니다.”

— 개그맨 황기순



“다들 좋아해주시니 제가 더 기뻐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금함을 개봉할 때면 모든 게 싹 잊혀요!”

— 가수 박상민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장애인 휠체어 탑승, 기증용 유모차 수거 등을 위한 차량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모금 기간 2022년 9월 1일~11월 30일

목표 금액 250만 원

모금 사용

휠체어 리프트 차량, 휠체어&유모차 이동 차량 개선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캠페인 클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휠체어·보조기기 이동 서비스 차량 개선 지원 “차량 개선이 시급하지만, 막막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은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부터 휠체어 등 보조 기기 대여, 물자가 부족한 외국에 유모차나 휠체어를 기증하는 일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량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엔진 떨림, 기화기 교체, 브레이크 밀림, 타이어 교체 등 당장 개선해야 하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과 수거 차량의 운송원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9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강원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남편 이어 아내까지, 동해시 최초 1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20년 이상 묵묵히 나눔을 응원하고 있는 추암횃집대게 박은주 대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남편 뒤에는 묵묵히 나눔을 응원하는 아내가 있다. 아너에 가입하며 부부 아너로 다시금 나눔의 길을 가고자 하는 박은주 대표다.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 동해시 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추암횃집대게 박은주 대표. 뒤로 '기부천사의 집'이란 글귀가 보인다.

동해시 5호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지난 8월 18일 강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95호, 동해시 5호 회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동해시 추암해변에 위치한 추암횃집대게 박은주 대표다. 동해시청에서 열린 가입식은 심규언 동해시장,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강릉권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박은주 대표의 아너 가입으로 동해시 최초 1호 부부 아너가 탄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박은주 대표의 남편은 동해시 2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박태권 대표다. 부부는 24년째 추암횃집대게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 무엇보다 박태권 대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20년 전부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매달 쌀을 기부해왔는가 하면, 이웃 돕기 성금과 물품 기부, 봉사 활동까지 복지의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해시 나눔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나눔리더 홍보와 추천뿐 아니라, 착한가게에 가입한 추암횃집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사랑의열매 배지를 주며 기부 동참할 기회를 선물한다. 강원 사랑의열매 동해, 삼척지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뚝고 사는 일당연해

박태권 대표의 큰 나눔 뒤에는 항상 박은주 대표가 있었다. 박은주 대표는 “나눔을 실천하고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나눔을 배웠다”고 말했다. 물론 처

“기부라고 하면 큰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쌀 한 포대, 2만원이었다. 그렇게 시작하는 기부의 기쁨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 동해시청에서 진행한 가입식에 함께한 박태권·박은주 부부, 동해시 1호 부부 아너다.

음부터 반긴 것은 아니다. 부부는 결혼 초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박태권 대표는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치킨 한 마리 살 돈이 없어 멀리 약수를 떠다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때부터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부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오늘의

삶을 일궈냈다. 박은주 대표는 ‘휴가철이 나 관광 시즌에는 하루 24시간 잠 안자고 온종일 일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부는 자신들이 어려움을 경험해보았기에 나눔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쌀 한 포대에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이웃을 만날 때면 정말 보람을 느낀다면서 말이다. ♡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과 함께하는 'The가꿈' 제7기 발대식

같이의 가치를 이루는 꿈 '가꿈'

멘토와 멘티가 서로에게 변화의
선순환을 선물하는 'The가꿈' 사업이
올해로 6년 차를 맞았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1



2

'같이'의 가치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 랜드홀에서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지정기탁사업 'The가꿈' 제7기 발대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사랑의열매,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등 기관 관계자와 대학생 봉사단 '가꾸미' 단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방송인 김재우가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The가꿈 사업은 힘겨운 취업 환경에서 스펙 쌓기와 등록금 마련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6년 차를 맞았다. 멘토 역할을 맡는 대학생은 개별 맞춤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경제활동에 쓰는 시간을 학업에 집중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멘티인 아동은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 탐색하며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얻는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서로의 성장을 위한 변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번에 발족한 The가꿈 7기 대학생 멘토들은 약 1년간 활동하게 된다. ♡

1 'The가꿈' 7기 발대식 진행 모습
2 발대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기념사진

제2기 임원진 출범한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사회문제 해결 위해 앞장설 것”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제2기 임원진이 출범했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첫 임원 회의 개최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타워에서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하 아너 클럽) 제2기 임원진의 첫 임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진은 지난 5월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에 선출됐다.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 아너 클럽은 서울 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모임이다. 임원 회의에서는 각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2022 상반기 경과 보고와 함께 서울 아너 클럽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서울 아너 클럽 분과별 특성을 연계한 분과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다짐했으며, 여성분과 모임 운영, 나눔 자선 골프 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 서울 아너 클럽은 예승유 회장과 심재원 부회장, 윤성철 부회장을 중심으로 여성분과·봉사분과·청청모·골프회·등산회로 구성돼 있다. 2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예승유 회장은

“제2기 서울 아너 클럽이 출범하게 돼 기쁘다”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아너 클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새롭게 출범한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2기 임원진의 첫 임원 회의



**제2기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임원진**

- 회장**
예승유(서울 28호, 전국 275호)
- 부회장**
심재원(서울 200호, 전국 1548호)
- 부회장**
윤성철(서울 230호, 전국 1838호)
- 여성분과 위원장**
조현욱(서울 167호, 전국 1299호)
- 봉사분과 위원장**
김평기(서울 207호, 전국 1628호)
- 청청모 회장**
허대건(서울 118호, 전국 941호)
- 골프회 회장**
문봉철(서울 120호, 전국 965호)
- 등산회 회장**
김정수(서울 239호, 전국 1878호)

新중년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센터 '라운.지' 3호점 오픈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사회 소통 허브로 발돋움”

지역사회 소통 활성화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라운.지' 3호점이 서울 광진구에 문을 열었다. 203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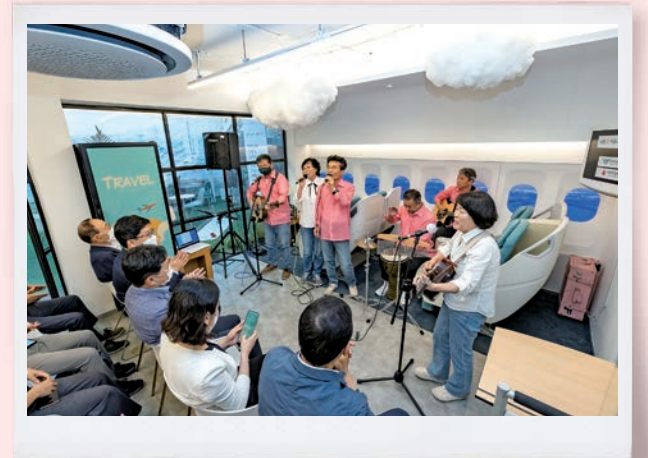
— 라운.지 3호점 오픈을 축하하는 개식식 참석자들(앞줄 왼쪽 첫 번째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 두 번째 추윤구 광진구의회 의장, 뒷줄 왼쪽 네 번째 김경호 광진구청장)



공항 콘셉트, 3호점

지난 7월, 인천 사랑의열매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함께하는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3호점이 서울 광진구에 문을 열었다. 라운.지 커뮤니티센터는 50세 이상 신중년 세대 은퇴자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번에 오픈한 라운.지 3호점 1층엔 은퇴 후 바리스타로 새롭게 출발한 신중년이 운영하는 카페가 위치하며, '공항' 콘셉트로 기내 좌석을 배치하는 등 여행의 설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 커뮤니티 공간인 2층은 광진구청의 일상 학습관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에선 IT 디자인과 문화 예술 관련 강의 등 신중년 마을 강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라운G 살롱', 마을 자치회와 연계해 주민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라운G 3355 스튜디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홍익대학교 디자인과 학생들과 '우리마을 브랜딩'이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신중년 활동가 10명으로 구성된 마을 홍보단 '라운G 히어로즈'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관련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지역 신중년 예술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지역 생산품을 개발·판매하는 '라운G 메이커스'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지역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이 목표
인천 사랑의열매와 인천국제공항공사



— '광진통기타사랑' 동아리 회원들의 라운.지 3호점 오픈 축하 공연

“라운.지 커뮤니티 센터가 지역 내 소통 허브로서 역할뿐 아니라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부사장

는 지난 2021년 5월 인천시 서구에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대전 동구에 2호점, 서울 광진구에 3호점을 열었다. 앞으로도 매년 1개소 오픈을 목표로 2030년까지 라운.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교류의 허브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부사장은 “이번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3호점이 지역사회 소통 활성화

하는 물론,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라운.지 커뮤니티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조성해 지역 내 소통 허브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은 “신중년의 은퇴 후 건강한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 이슈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3억 원 기탁하며 금융 사각지대 여성 한부모가족 무이자 소액 대출 지원 나선 조혜임 마녀

“여성 한부모·미혼모 가정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해요!”

경기 사랑의열매 조혜임 마녀 소사이어티 회원이 금융 사각지대 여성 한부모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다.

글강은진 사진 경기 사랑의열매

결혼·출산으로 미혼모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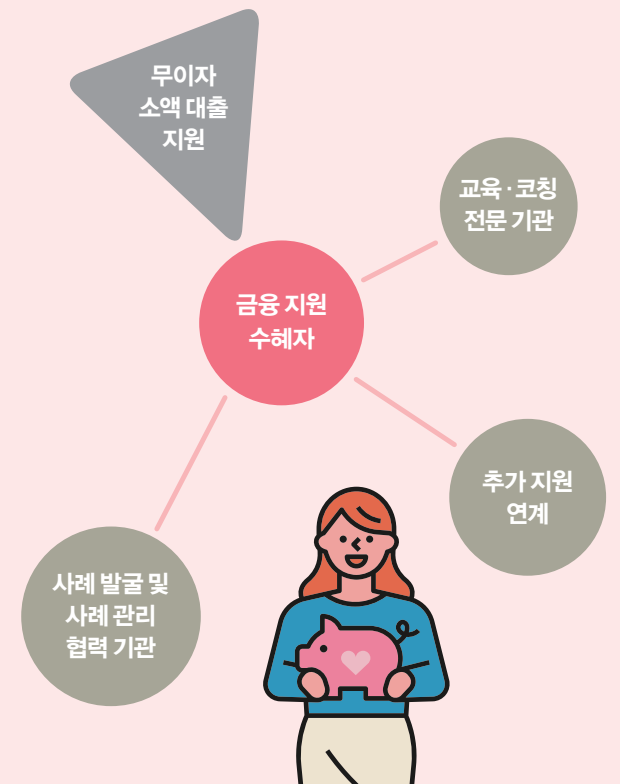
에스디바이오센서 마케팅부문 조혜임 전무이사가 금융 사각지대 여성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에 3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8월 10일, 경기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한 기부금 전달식에는 에스디바이오센서 마케팅부문 조혜임 전무이사와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 재단법인 밴드 하정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혜임 전무이사는 2017년 경기 사랑의열매 마녀 소사이어티 가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사회적 금융 전문 기관인 재단법인 밴드에 전달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한부모 및 미혼모 가족 지원 사업 기금으로 쓸 계획이다. 조혜임 전무이사는 자신이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미혼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혜임 전무이사는 “부모가 되어보니, 경제적 상황과 조건이 어떠한 내 아이만큼은 최상으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건강한 자립 응원할 것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2,089만 가구의 약 7%인 153만 가구가 한부모 가족이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56.5%인 22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은 남성 한부모 가족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소득은 남성 한부모 가족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조혜임 전무이사가 기탁한 지원금은 앞

“경기도 내 여성 한부모 가정 금융 지원을 통해 생계 및 경제적·심리적 안정은 물론, 여성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립에 대한 의욕이 제고되기를 바란다.”

- 에스디바이오센서 마케팅부문 조혜임 전무이사



으로 경기도 내 취약 계층 여성 한부모를 돕는 데 쓰인다. 무엇보다 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코칭을 통해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컨설팅과 복지적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후속 지원도 진행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조혜임 전무이사 역시 “단순한 지원만은 성장하지 못한다”면서, “지원 후 페이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이나 사회 정서 교육까지 동반한다는 점에서 대출 지원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은 “나눔 선순환의 뜻을 담아 기탁해주신 소중한 성금을 여성 한부모 가정의 금융 역량 강화에 사용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조혜임 전무이사는 “여성 한부모·미혼모 가정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하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

임팩트금융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어가는 KSD나눔재단

“금융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해요!”

취약 계층을 위한 임팩트금융 생태계 구축에 나선 KSD나눔재단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경기북부 사랑의열매



1 임팩트금융 교육 진행 모습
2 임팩트금융 아카데미 홈페이지

임팩트금융 아카데미 론칭

임팩트금융의 생태계 구축에 초석을 다지고 있는 KSD나눔재단이 화제다. 임팩트금융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 계층 대상 대출 및 투자 상품을 개발하거나 펀딩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등 금융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공헌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SIB(사회성과 연계채권)를 도입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각 지자체 역시 해봄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임팩트금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에 KSD나눔재단은 국내 임팩트금융의 성장을 위한 전문 인력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및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임팩트금융 아카데미’를 론칭,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임팩트 기관 및 유관 단체 실무자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 18회기, 전국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임팩트금융 교육 14회기를 실시했다. 아울러 교육에 참여한 임팩트금융 전문가 296명(온라인 233명, 오프라인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아 현장의 반응도 뜨거웠음을 확인했다.

“임팩트금융 아카데미와 홈페이지가 저소득층의 금융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금융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팩트금융의 생태계를 확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 KSD나눔재단 서보영 사무국장

않았다. 지난 8월 임팩트금융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이 이어지도록 노력했다. 현재 총 9개 영역의 임팩트금융 교육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교육을 수료하면 이수증도 함께 주어진다. KSD나눔재단 서보영 사무국장은 “임팩트금융 홈페이지가 임팩트금융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은 “이웃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KSD나눔재단과 사업의 안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KSD나눔재단은 자본시장에서 얻은 회사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2009년에 설립한 사회 공헌재단이다. 🍀

임팩트금융 생태계 초석 마련

KSD나눔재단이 후원하고,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주최한 이번 사업은 여러 성과도 속속 도출했다.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마포와 강원 여성 사회적기업가 자조 기금을 론칭했으며, 대구가

치연대금융 같은, 자조 기금을 모으는 중개 기관도 설립됐기 때문이다. 모두 활동 시작 8개월여 만에 이뤄낸 것으로, 현장에서 관련 교육 및 코칭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KSD나눔재단의 후원은 교육 사업에 머무르지

- KSD나눔재단의 임팩트금융 전문가 양성 교육 수료식 모습



9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3인 아너 동시 가입

지역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나눔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김창균 회장, 김동수 산악회장, 이수계 부회장이 나란히 아너 회원에 이름을 올리며 부산의 나눔문화를 '바르게' 전파하고자 힘을 보탤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왼쪽부터)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김동수 산악회장, 이수계 부회장, 김창균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부산 아너 클럽 정성우 회장

부산 나눔리더 100호의 주역들

전국 17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된 바르게살기운동은 3대 국민운동 단체 중 한 곳이다. 그중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이하 바르게살기운동 부산협의회)는 5만여 명의 회원과 함께 안전 도시 운동 범시민 캠페인,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국토 청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 공헌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이다. 2020년 1월에는 김창균 회장과 임원 5명이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하며 부산 나눔리더 100호의 주인공이 되었다.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출범 2년 만에 100호 탄생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3대 국민운동 단체 중 최초 나눔리더 동시 가입 사례로 기록되었다.

지역을 위해 나눔도 솔선수범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던 중 지난 8월 9일 바르게살기운동 부산협의회 김창균 회장(한국필아판매(주) 대표), 김동수 산악회장(주)미천환경 대표, 이수계 부회장(주)오션로직스 대표)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또 한 번 의미 있는 나눔 궤적을 남겼다. 특히 김창균 회장과 김동수 산악회장은 2년 전 나눔리더 가

입에 이어 아너 가입까지 함께하며 부산 사랑의열매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부산시청에서 진행한 공동 가입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부산 아너 클럽 정성우 회장

이 참석해 따뜻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나눔에 동참한 이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가입식에서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부산협의회

와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부산협의회의 여러 활동과 지속적인 나눔이 있어 부산은 앞으로도 계속 ‘바르게’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

“우리 주위 이웃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참여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김동수 산악회장(부산 아너 274호)

“제 생각에 봉사의 끝은 나눔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너 소사이어티 동시 가입이 봉사 활동에 헌신하는 타 국민운동 단체에 나눔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김창균 회장(부산 아너 273호)

“이번 나눔 실천으로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민운동 단체 일원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쁩니다.”

-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이수계 부회장(부산 아너 275호)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개소

한자리에 모인 나눔 대가(大家)들

대구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이 새 단장을 마쳤다.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이웃사랑을 실천한 나눔 대가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꾸몄다. 향후 나눔문화 확산에 구심점 역할을 할 명예의 전당을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개관식에 참석한 아너 회원들



“우리 아너 회원분들의 마음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눔의 도시 대구, 살기 좋은 도시 대구가 되길 바랍니다.”

- 신홍식 대구 아너 대표

지역사회에 전하는 위대한 나눔 정신

지난 8월 2일 대구 사랑의열매는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개소식을 진행했다. 기존 명예의 전당을 달서구 두류동 내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 색다른 콘셉트로 단장해 공개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구 아너 회원의 나눔 정신을 예우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이를 알리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조성한 만큼 공간을 구성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대구 아너 회원의 나눔 메시지를 담은 동판과 부부 아너, 패밀리 아너 등 의미 있는 아너 회원의 나눔 이야기를 담은 공간도 마련했다. 개소식은 신홍식 대구 아너 대표((사)아트빌리지 대표)와 20여 명의 회원,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소식에서 김수학 회장은 “남다른 나눔 철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며, “명예의 전당은 대구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관람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의 전당에 새겨진 아너 회원의 나눔 정신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울림이 되고, 그로 인해 나눔에 동참하는 이가 더욱 많아지길 바라본다. ❀

특별한 나눔을 전한 대구 아너 회원

대구 5호 (사)아트빌리지 신홍식 대표 대구 5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한 신홍식 대표는 생전 이웃을 사랑하던 부모님의 모습을 특별하게 기억하고자 나눔을 실천했다. 두 분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달해 고(故) 신현철 옹과 고(故) 김옥순 여사는 각각 대구 167호, 168호 아너 회원이 되었다.

대구 13호 새마을문고중앙회 김기호 이사 김기호 이사는 2013년 자신의 노후 자금을 기부해 아너 회원이 됐다. 다음 해 남편 고(故) 박찬수 예비역 준장의 이름으로도 아너에 가입했으며, '단돈 100원이라도 모두 나누자'는 남편과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유산 기부하기로 했다.

대구 200호 미광전업 박무근 대표이사 2012년부터 매년 겨울이 되면 익명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다. 10년간 익명 기부를 하던 박무근 대표가 올해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누적 기부액만 20억 원에 달하지만, 한사코 아너 회원을 거절하던 박 대표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내 김수금 씨와 함께 아너 가입을 결심했다.

패밀리 아너·착한ilter 가입 (주)서보 이덕록 회장 2014년 이덕록 회장, 2015년 아내 윤정희 씨, 2019년 자녀 이소원 씨까지 아너에 가입하며 가족 전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또 2016년에는 (주)서보의 전 직원이 나눔에 동참하며 착한ilter에 가입해 지역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롯데삼동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함께 성장하는 멘토링

지난 7월 19일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대학생 멘토링 2차 연도 지원 사업'(이하 찾아가는 멘토링) 수료식을 개최했다. 특히 당초에 예상한 것 이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사랑의열매

이순걸 울주군수, 김영철 울주군의장, 롯데삼동복지재단 이기현 차장, 울산 사랑의열매 박도문 회장, 울주군 지역아동센터장, 대학생 멘토 등 70여 명이 참석한 수료식



수준별 맞춤 학습으로 기초부터 튼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상당수는 취학 전은 물론 취학 후에도 가정에서 체계적인 학습 지도를 받지 못한다. 고학년인데도 글자를 익히지 못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수학과 영어는 아예 포기해버리기 일쑤다. 이들의 기초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이 3억 400만 원을 후원했다. 여기에 울산 사랑의열매의 지원 아래 휴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 진행을 맡아 지난해부터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는 총 39명. 이들은 기본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한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11곳을 찾아가 초등 5·6학년 멘티 77명에게 주 2회 학습 멘토링을 진행했다.

참여자 대부분 긍정적 변화
멘토링 결과는 놀라웠다. 사전·사후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니 멘티 77명 중 67명의 성적이 올랐다. 5학년은 평균 10점, 6학년은 평균 15점 상승했다. 기본 개념·심화·응용 부문 모두 균형 있게 향상했으며, 특히 수학의 심화 부문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뿐 아니라 대학생 멘토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멘티들의 긍정적 태도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태도와 성적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출석률과 활동 참여율도 매우 좋아졌다는 후문. 덕분에 7월 19일에 열린



소그룹으로 진행한 학습 멘토링

“멘토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공부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비밀이나 고민도 잘 들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멘티 참여자

수료식은 성공적인 끝맺음을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함께 자리한 롯데삼동복지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주 지역 내 아동·청소년이 대학생 멘토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자신감과 성장 동력을 얻길 바란다”며 격려 인사를 전했다. 🍀



즐거운 나눔문화 만드는 경주엑스포대공원

행운을 빌며 나눔을 쌓는 비밀의 정원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 주제 국제 박람회로 출발한 경주엑스포대공원. 20여 년간 경주 시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최근에는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새로운 나눔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초청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문화 나눔

동전으로 기부하는 비밀의 정원

경주엑스포대공원 비밀의 정원은 푸르름이 가득한 숲 사이에 자리한 고요한 연못,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새소리까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아름답다. 지난해 5월 비밀의 정원에 대형 사랑의열매 조형물로 만든 기부 인증샷 포토 존과 연못 내 행운의 모금함에 설치했다. 이곳에서 행운을 빌며 모금함에 동전을 던지는 것이 곧 기부 실천이라는 사실. 지난해 4월 경주엑스포대공원과 경북 사랑의열매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행운의 모금함에 모인 동전은 전액 기부해 문화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찾는 이들이 동전을 던진 후 사랑의열매 조형물 앞에서 기부 인증샷을 찍으며 쉽고 재미있는 나눔을 경험하는 한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나눔 모범 기관다운 면모 보여

지난 7월 28일 경주엑스포대공원은 행운의 동전 던지기로 모인 동전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까지 모은 총 34만 1,680원은 협약 이후 처음으로 전달하는 것인 만큼 의미가 남달랐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 중이다. 경북 도내 어느 기관보다 나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며 모범 기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 나눔도 그중 하나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경북 사랑의열매 및 경상북도 위탁 지역아동센터 경북도지원단과 함께 오는 12월 말까지 39개소 1000여 명의 아동을 초청할 계획이다. 무료입장은 물론 공연 및

공원 콘텐츠를 체험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밀의 정원 내 행운의 동전 던지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비밀의 정원에 차곡차곡 쌓인 '행운'들이 지역사회에 또 어떤 나눔으로 전해질지 자못 궁금하다. 🍀



— 지난해 4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경주엑스포대공원과 경북 사랑의열매



— 정규식 경주엑스포사무총장(왼쪽)과 경북 사랑의열매 정동의 사무처장이 함께한 행운의 동전 성금 전달식 모습

안전하게 맘껏 놀 수 있는

우리들의 행복한 안심놀이터 1호 개장

밖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요즘,
(주)센트랄과 경남 사랑의열매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말이다. 글 이선희 사진 경남 사랑의열매

놀이터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이 직접
테이프를 끊은 놀이섬 사이사이랑 개장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합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놀 권리란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함을 이른다. 이에 올해로 창업 70주년을 맞은 경남 창원시의 대표적 자동차 부품 기업 (주)센트랄이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6월 (주)센트랄이 후원하고 경남 사랑의열매가 지원한 사업이다. 경상남도·창원시·세이브더칠드런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들의 행복한 안심놀이터'(이하 안심놀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안심놀이터는 지역 내 노후화한 놀이터를 개·보수하기로 결정했다. 인근 지역 어린이 및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참여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 모두의 염원을 담은 안심놀이터 1호점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즐거움이 가득한 놀이섬 사이사이랑

창원시 성산구 강정어린이공원에 자리한 안심놀이터 1호점 개장식에는 (주)센트랄 강태룡 회장과 경남 사랑의열매 이성도 사무처장,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 건축설계사무소 KEAB 백희성 대표와 인근 주민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에 조성한 안심놀이터 1호점은 '놀이섬 사이사이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모래 '샤와 아이의 '이'를 합쳐 만든 단어로, 아이들이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자유롭게 마음껏 가지고 논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어린이들이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놀이터를 설계한 KEAB 백희성 대표는 "아이들 의견을 수렴해보니 모래놀이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언제든지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심상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심놀이터 1호점을 성공적으로 개장한 (주)센트랄은 공장이 위치한 지역 인근의 낙후한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곧 2호점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는 게 제일 좋은' 어린이들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안심놀이터가 탄생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



모래동산을 형상화한 우레탄 언덕, 여러 모양의 구조물과 모래주머니 20여 개가 놓인 안심놀이터 모습



안심놀이터 개장식에 함께한 인근 주민과 어린이들

“놀이섬 사이사이랑은 미래의 꿈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내딛는 센트랄의 첫걸음입니다. 뛰노는 아이들 표정을 보니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주)센트랄 강태룡 회장

9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나눔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세종시 여성 아너 1호, 성원벤처메디칼(합) 이숙우 이사

“좋은 분들에게 누구보다 도움받은 사람이 저예요”



이숙우 이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며 살아간다. 자신도 도움을 받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의 나눔 이야기. 글 강은진 사진 서범세

세종시 1호 여성 아너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은은한 미소가 가득한 인상은 따뜻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절로 드는 성원벤처메디칼(합) 이숙우 이사다. 그는 세종시에서 나눔의 명사로 유명하다. 세종시 여성 1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의 소유자다. 또 세종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무를 맡아 다양한 봉사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나눔에 뜻이 있는 지인에게 아너 소사이어티를 소개하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시 나눔문화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그의 헌신은 2019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숙우 이사는 평소 워낙 인심이 좋고 주변을 잘 챙겨 이웃들의 귀감이 되었지만, 공식적 기부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시작했다.

“당시 세종 사랑의열매 안성구 회장님이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유를 받았지요. 워낙 인품이 좋으신 데다 아너 소사이어티에 관해

설명해주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좋아서 망설임 없이 바로 결정했죠.” 늘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숙우 이사는 여성 1호 아너가 되면서 나눔의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따뜻한 마음도 부창부수

나눔의 행보는 비단 이숙우 이사만의 것이 아니다. 이숙우 이사의 남편이자 성원벤처메디칼(합) 이정귀 대표이사도 이웃을 위한 마음이 아내인 이숙우 이사 못지않다. 세종 사랑의열매 제13호 나눔리더로서 나눔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학창 시절 어려운 형편에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기차를 탄 마음의 빔을 갚기 위해 한국철도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숙우 이사는 남편을 가리켜 도움받은 것은 갚을 때까지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20년 전에 남편이 배달을 다녀오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 지나가던 택시기사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이후로 인연이 돼 여유가 생긴 다음에는 유럽 여행도 보내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

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남편이.”

이숙우 이사에게 듣는 남편 이정귀 대표의 일화는 은혜 값은 제비 이야기가 따로 없었다. 작은 도움도 절대 잊지 않고 나중에 값은 에피소드가 끝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내 말을 듣고 있던 이정귀 대표가 아내 앞에서 자신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고 손사래를 친다.

“아내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예요.

당신 지금까지 벌금이나 교통 딱지 하나 안 떴잖아? 난 좀 있지.(웃음) 아내는 정말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은, 착한 사람 그 자체예요.”

휴일은 오직 설과 추석 단 이틀

약 30여 년 전, 이정귀 대표이사는 당시 조치원읍에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성원동물약품을 창업해 아내 이숙우 이사와 함께 오늘의 성원벤처메디칼(합)로 성장시켰다. 부부가 이뤄낸 오늘의 성공만을 부러워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에는 숱한 시련과 아픔, 그리고 노력이 숨어 있었다. 창업 후 부부가 쉰 날은 오직 추석과 설 이틀뿐이었을 정도다.

“시아버님이 천안에서 가족 약국을 크게 하시고, 이층집에 차도 있고 해서… 결혼할 때 정말 부자집인 줄 알았어요.(웃음) 근데 지인에게 어음을 빌려준 게 잘못되어 그야말로 부도가 났어요. 집에 딱지가 붙고 그랬으니까요. 아버님은 쇼크로 돌아가시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정말 3년간 월급 한 번 안 받으면서 그 빚 다 청산하고 여기 조치원으로 왔죠.”

가진 거라곤 부부의 성실뿐이었다. 이숙우 이사는 “지금 생각하니 부부가 각각 직원 5명 뒀을 한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년 365일 중 363일을 일했던 부부는 빈손으로 조치원에 온 지 6년 만에 1층 가게에 살림집이 딸린 2층 건물을 샀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한겨울에 불이 나 모두 전소되는 큰 시련을 맞닥뜨렸다.



도움받은 만큼 도울 것

그야말로 완전 전소였다고 한다. 2층에서 자고 있던 노모와 아이들을 창문 밖으로 던지다시피 피신시킬 만큼 말이다. “한겨울 잠옷 바람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우리 둘째 딸이 ‘엄마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며 우는 거예요. 날이 밝아 가보니… 컴퓨터까지 다 타고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서랍장에 넣어둔 외상 장부만 하나 딱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또 빈손이 된 우리의 시작이 되었어요.(웃음)”

평소 양돈, 양계, 축산 등 거래처 농가들은 물론 약품을 공급해주는 제약사들까지 너도나도 이정귀 대표와 이숙우 이사의 재기를 돕기 위해 나섰다. 부부가 평소 얼마나 신뢰를 얻으며 사업을 해왔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세무 조사를 나온 사람이 부부의 정직함과 검소함에 혀를 내두르며 쓸만한 컵 세트라도 하나 사라라고 말하며 갔을까. 지금도 부부는 서로 신발이 낡았다, 가방이 오래됐다 하면서 새로 사라고 성화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돈 쓰길 아까워한다. 나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정귀 대표는 “우리는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그저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이웃을 돕는 건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이숙우 이사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보다 좋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자신들이라며, 받은 만큼은 꼭 갚고 싶다고 말이다. 부부의 주머니 받거니 따듯한 마음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더없이 좋은 사람들이다. ♡

— 2019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숙우 아내가 남편 이정귀
대표와 자리를 함께했다.



“우리는 누구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돌이켜보면 어려운 순간마다 좋은 분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웃을 돕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기쁨은 덤이고요!”

지역 인재 육성부터 틈새 계층 지원까지, 기업 책임 다하는 롯데케미칼(주) 연구소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꿈꿉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상생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곳, 바로 롯데케미칼(주) 연구소다.

글강은진 사진대전사랑의열매



1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응시생을 위한 도시락 지원

2 화공 캠프 모습

8년간 이어진 지역 장학 사업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회사가 있다. 바로 롯데케미칼(주) 연구소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눔을 시작해 누적 기부액만 약 6억 원(연구소 사업장 기준)에 달한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오며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대전 사랑의열매와 함께 하고 있는 지역 청소년 장학금 후원이다. 롯데케미칼(주) 연구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건강하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희망나눔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사업을 통해 약 2억 4,000만 원을 후원했다. 한번 선정되면 대학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롯데케미칼(주) 연구소 황민재 소장

교 입학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나눔장학금은 지역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을 후원하는 사업이고, 대학 입학 때 올바른 적응을 위해 지급하는 꿈드림장학금은 대전 시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롯데케미칼(주) 연구소는 지역 아동의 교육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인문·과학 도서 후원, 롯데그린스쿨 친환경 교육, 화공 캠프 등을 진행하며 약 1억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지역 아동의 교육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인문·과학 도서를 후원하는 롯데케미칼(주) 연구소

아이디어 돋보이는 나눔 활동

무엇보다 롯데케미칼(주) 연구소의 아이디어 넘치는 사회 공헌 활동이 눈에 띈다. 앞서 소개한 장학금 지원 말고도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응시생 도시락 지원, 저소득층 태블릿 PC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폈기 때문에 기획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그뿐 아니다. 롯데케미칼(주) 연구소는 지역사회 틈새 계층의 생활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홀몸 어르신을 위한 동계 유류비 지원, 하계 냉방용품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틈새 계층 코로나19 피해 지원 ●희망나눔캠페인 후원금 지원 등을 통해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환경문제도 롯데케미칼(주) 연구소가 앞장서고 있는 사회 공헌 분야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 위생용품 지원 ●지역 생태계 보호 'EM 흙공 뿌리기' 하천 정화 활동 ●플라스틱 인식 개선과 올바른 재활용 방법 교육을 위한 롯데그린스쿨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롯데케미칼(주) 연구소의 나눔은 계속될 전망이다. 🍀





야간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

충북 사랑의열매와 포란지역아동센터의 '포란과 밤과 별과 시: 별 헤는 아이들'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밤”

홀로 어두운 밤을 지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 바로 충북 사랑의열매가 진행하고 있는 야간방임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간 보호 사업이다.

글 강은진 사진 충북 사랑의열매

혼자밤을 지키는 아이들

충북 음성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지수(가명)는 하교 후 부모님이 귀가하는 늦은 밤까지 혼자 집을 지킨다. 게다가 부모님 모두 외국인이라 한국말이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학교 수업을 대부분 미디어 매체로 진행하다 보니 또래와도 어울리지 못했다. 설상가상 가정 형편까지 넉넉지 않아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학교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대사회에선 보기 드문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 및 조손 가구의 아동일수록 우울 및 불안과 공격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삶을 통해 지수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있다. 바로 충북 사랑의열매와 포란지역아동센터가 2021년부터 시작한 야간 방임 아동·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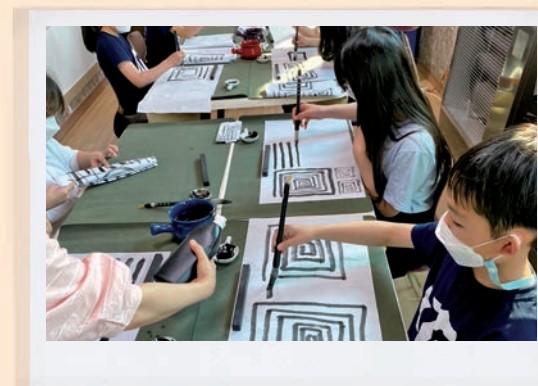
포란지역아동센터의 공예 프로그램 모습

소년을 위한 야간 보호 사업 '포란과 밤과 별과 시: 별 헤는 아이들'(이하 야간 보호 사업)을 통해서다.

보호받는 삶, 건강한 성장

충북 사랑의열매의 복권기금 야간 보호 사업은 야간에도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교육, 정서,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지원을 시작했다. 포란지역아동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야간 보호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수의 변화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법을 터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빠른 습득으로 의사소통 능력까지 눈에 띄게 향상했기 때문이다. 또 늦은 시간까지 혼자 방임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기본 위생은 물론 건강, 사회성, 가정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모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야간 보호 사업은 지수처럼 야간에도 방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야간 보호 사업을 통해 야간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주며, 기초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참여 가정의 정서적 안정 효과까지 기대한다. ♡



민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야간 보호 사업 아동들

주거 약자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주택 모델화 사업

“미래를 위한 희망, 안정된 환경에서 시작”

주거 약자는 기본 의식주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다.
이들이 다시금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을까?

글강은진 사진충남 사랑의열매



주거 약자의 지역사회 정착 도와

다양한 지역사회 지지망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자하는 '주거 약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주택 모델화 사업'이 긍정적 성과를 내었다. 주거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시작한 이번 사업은 충남 사랑의열매가 주관하고 충남 주거 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원이 수행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한 지원 주택과 함께 약 3년간 생활 개선 및 정서 지원,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지원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개·보수 및 유지·보수뿐 아니라 입주 청소부터 가구 구입, 관리비 및 주택 임대료 등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해 전반적인 솔루션을 진행하였다. 또 가족 상담은 물론 문화 체험 행사와 대상자별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검진 및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치과·안과 치료는 물론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이처럼 지원 주택 모델화 사업은 주거 약자에게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

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 체험

사례로 만나는 주거약자 이웃의 희망 일기

CASE. 1 주거 안정 통해 건강도 회복한 A 씨(여)

과거 고시원과 노숙인 생활 시설에서 거주하다 심각하게 노후된 무상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A 씨는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도 여의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설상가상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까지 앓고 있어 단열도 위생도 취약한 주거 환경이 건강 악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AFTER 임대주택 수리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임대료 및 공과금·관리비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며 안정된 일상을 찾았다. 또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도 좋아졌다.



CASE. 2 지원 통해 자립, 임대주택 벗어난 B 씨(남)

노후한 임대주택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B 씨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고혈압과 당뇨, 천식 등 만성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아내는 B 씨를 도와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건강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그러나 B 씨가 워낙 자활 의지가 강해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개선의 여지가 큰 상황이었다.

AFTER 지역사회활동센터에서 근무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산을 모은 뒤,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까지 했다. B 씨의 아내는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자녀 가족과 한층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ASE. 3 사회 서비스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C 씨(남)

C 씨는 성장 과정에서 심한 구타와 폭력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랜 노숙 생활과 알코올 중독증으로 고생하다 삶의 개선 의지로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그러나 심한 곰팡이와 취약한 단열 등 열악한 임대주택 환경에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AFTER 사회 서비스 교육을 통해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연계 교육으로 창호·도배 전문가 교육에도 참여해 능력을 개발, 자활센터에서 근로함으로써 탈수급을 하게 됐다. 또 4년간 무상 임대료 지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주한 후,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9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제주
광주
전북
전남



나눔문화 선도하는 향토 기업

제주를 지키는 (주)한라산의 따뜻한 혜안



제주의 대표 향토 기업을 꼽자면 단연 (주)한라산이다. 1950년 호남양조장으로 시작해 72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단순히 제주에서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했기에 대표 향토 기업이라 부르는 게 아니다. 청정 자연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곁에는 늘 (주)한라산이 있었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제주사랑의열매, (주)한라산

사랑의열매를 품은 한라산

한라산21, 한라산17, 한라산물순한소주, 허벅솔 등을 만드는 (주)한라산을 단순히 주류 제조 기업이라고 말하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제주 화산 암반수로 주정을 희석하고, 한라산 800m 고지에서 자생하는 조릿대의 싹을 활용해 정제하며, 제주산 발버로 만든 쌀 증류 원액을 첨가하는 등 제주의 맛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 또한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에서 그 맛을 인정받으며, 현재 15개국에 수출하는 등 말 그대로 제주 대표 향토 기업이다. 제주 천혜의 자연으로 만들고, 도민의 사랑과 성원으로 자란 만큼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주)한라산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30%를 환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57억 원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정도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 중이다.

제주 사랑의열매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끈끈한 나눔의 인연을 맺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도내 기업 중 최초로 (주)한라산의 한라산소주 제품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넣어 나눔의 가치를 알리며 판매액 일부를 기부했다. 지난 8월에

는 (주)한라산의 '최초' 기록이 더해졌다. 제주 사랑의열매에서 시작한 중소기업 대상 신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나눔선도기업'에 1호로 가입하며 3년간 3,000만 원 기부를 약속한 것. 또한 착한 소비 협약을 체결하며 다시 한번 한라산 소주에 빨간 사랑의열매가 새겨지게 됐다. 8월 2일 제주사랑의열매 강지언 회장을 비롯해 한희섭 부회장 등 많은 이의 축하 속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주)한

라산 현재웅 대표이사과 고광석 전무, 현우경 전무, 현재준 상무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나눔선도기업 가입식 이후 만난 현재웅 대표이사는 "1호라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다"며 말문을 열었다. "2006년 이후 오랜만에 한라산소주에 사랑의열매가 새겨지게 되었네요. 사랑의열매와 다시 만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가치 실현 위한 아낌없는 지원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말처럼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 이제 막 출범한 제주 사랑의열매 나눔선도기업의 '첫 단추'를 채워줄 기부자로 (주)한라산만 한 책임자가 또 있을까. 앞서 지난 7월 29일 (주)한라산은 도내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1,2 바다의 날을 맞아 깨끗한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진행된 해양 정화 활동



1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제주의 평화와 안녕을 희망하는 한라산소주 동백에디션 2 착한소비 협약에 따라 다시 한번 사랑의열매 로고를 입힌 한라산소주 3 현재 (주)한라산을 이끌고 있는 현재웅 대표이사

이익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지역 내 수많은 기업 중에서도 (주)한라산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유가 있다. 현재



까지 57억 원을 사회 환원한 것은 물론, 다방면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희망드림 장학금 지원,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문화 체험 활동 지원,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개발한 제품의 판매 수익금 기부, 한라산 수봉데이(수요일 봉사의 날) 임직원 봉사 활동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그중에서도 현재웅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주 제조용 주정 기부를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 물품이 매우 부족해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주 제조용 주정으로 방역용 알코올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곧장 국제 청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적극 행정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알코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자 뜻을 모아주셨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알코올 1만 5,000L를 도내 153개 시설에 전달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제주 내 주류 제조용 주정을 기부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아름다운 제주를 위해

창립 72년을 맞이한 (주)한라산은 올해 '도민과 함께한 72년, 도민과 함께할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100년 기업 도약의 해'로 정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좇는 대신 기업, 나아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주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지만, 그에 비해 제주 환경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기업은 턱없이 적다. 제주 토박이인 현 대표는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제주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친환경 접착식 라벨을 도입한 것은 물론, 제주 해변과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비치클린 줍젠' 프로젝트, 한라산 환경 정화에 힘쓰는 '한라산 지킴이'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환경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정화 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제주 '맑은 물 지킴이' 서명 캠페인 전개 등 청정 제주를 보존하고자 힘쓴다. (주)한라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나아가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진심을 더한다. 그러기에 많은 이가 제주 대표 향토 기업으로 (주)한라산을 꼽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라. 🍀

Mini Interview

“제주다움과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100년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한라산 현재웅 대표이사

제주 사랑의열매와 어떻게 나눔 인연을 맺었나요? (주)한라산은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발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제주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기부금을 투명하게 운용해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나눔 파트너입니다. 이번 나눔선도기업 가입을 발판 삼아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 (주)한라산이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따뜻한 제주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당기순이익의 30%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요? (주)한라산은 제주와 함께 성장해온 100% 순수 향토 기업으로, 지역사회 환원은 당연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말로는 향토 기업을 외치면서 정작 지역사회 환원에는 뒷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외지 대기업은 지역 내 단순 재무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뿐 해당 지역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거나 사회 환원 활동에는 냉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한라산은 제주 지역사회 나눔문화 정착을 주도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 공헌 활동은 어떻게 전개할 계획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한라산은 70여 년 동안 제주도민의 애환(哀歡)을 달래온 '도민 기업'입니다. 향후 100년 향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주다움'과 '지역 상생'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나눔·봉사의 기업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며, 도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회 공헌 활동에 ESG 경영 체제를 밀착 접목해 '청정 제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 활성화 등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8월 2일 진행된 제주 사랑의열매 나눔선도기업 1호 가입식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힘찬 질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한국마사회는 말 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1949년에 설립했다. 특히 5년간 평균 100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이 눈부시다. 그중에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의 끝없는 나눔 활동이 눈길을 끈다.

글 이선희 사진 광주 사랑의열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전달식



구석구석 살피는 세심한 나눔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는 광주 사랑의열매에 2003년 성금 전달을 시작으로 지로 모금, CSR 모금, 코로나19 특별 모금 등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현재까지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금액은 7억 8,000여만 원(현물 기부 1억 3,000여만 원 포함)에 달한다. 기부금 규모도 크지만, 무엇보다 오랜 기간 이어온 폭넓은 지원이 광주지사 사회 공헌 활동의 특징이다. 대상 및 복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대표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합동결혼식, 결혼이주여성 취업 연계 자격증 취득 사업, 다문화 가족 어울림 축제 등이 있다. 또 취약 계층 결식 예방 사업, 돌봄 이웃에게 마스크 지원, 1인 가구 반찬 배달, 4060 맞춤형 지원 등 지역의 복지 발전에 꾸준히 힘써왔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등 셀 수 없이 많은 나눔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의 대표적 지원 사업

경양마을 재미곳간 광주 3대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을 활성화하고, 돌봄 이웃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진행한 전통시장 상품권 나누기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400여 세대에 지급했다.

저소득 청소년 기(氣) 살리기 코로나19 위기로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아졌고, 이는 자신감 저하로 이어졌다. 이에 초·중·고 학생에게 의류(운동화)와 외식을 지원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낙상을 예방해(孝) 효 어르신은 신체 기능, 균형 감각 저하로 낙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 등 의외로 실내에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광주 동구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513세대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방문 설치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도록 도왔다. ♡



지역의 취약 계층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했다.



마스크를 지원해 코로나19 방역에도 힘을 보탰다.



지역 기업이 선사하는 시원한 여름 나기

“무더운 여름, 함께 이겨내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마음껏 냉방 기기를 사용하지도 못해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이 있다.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해 전북 도내 기업들이 나섰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진행한 다양한 여름 나기 사업을 소개한다. 글이선희 사진전북사랑의열매



1 쿨 매트를 전달한 (주)세아베스틸
2 어르신 건강 증진 꾸러미를 제작한 하이트진로(주) 특판전주지점

(주)세아베스틸, 희망 모아 모금으로 쿨 매트 전달

특수강 제품 제조 기업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김철희)은 군산시에 3,000만 원 상당의 쿨 매트 550개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여름 나기 지원 사업을 위해 임직원 '희망 모아 모금'과 직원들의 급여 끝전으로 기금을 조성해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주)세아베스틸은 군산 복지 발전을 위해 이번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5,000만 원을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주) 특판전주지점의 건강 증진 꾸러미

하이트진로(주) 특판전주지점(지점장 임동식)은 무더위에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운 어르신을 위해 823만 원 상당의 건강 증진 꾸러미를 제작했다. 전동 마사지기, 관절 영양제, 통증 패치, 지압용 가래 등 건강관리에 도움 되는 물품을 접이식 장바구니에 담아 도내 취약 계층 어르신 216분께 전달했다.



(주)하림, 삼계탕 4,460인분 제공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은 여름 보양식 삼계탕을 제공해 지역민의 건강을 챙겼다.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1,000만 원 상당 2,460인분을 재가노인 복지시설 52개소에 전달했으며,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에 600만 원 상당 삼계탕 1,500인분을 기부해 전주 지역 1인 가구 어르신과 장애인, 소외 계층의 체력 보강을 도왔다. 또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다리로움 밥차 사업에 제공한 200만 원 상당의 삼계탕 500인분은 저소득 주민의 떨어진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시원 키트 나눔 사업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이 모토인 JB 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매년 여름 폭염 취약 계층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시원 키트 나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는 쿨 매트, 선풍기, 쿨 스킨 등으로 구성된 1,500만 원 상당의 시원 키트를 도내 1인 가구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 폭염 취약 계층 400가구에 전달했다. 특히 전북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원들이 직접 키트를 포장하며 마음을 더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폭염 취약 계층 400가구에 전달한 시원 키트



나눔의 바다를 열어 행복한 세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년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컨테이너까지 대부분의 화물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전천후 종합 항만이라는 독보적 위치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전천후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글 이선희 사진 전남 사랑의열매

전남 소재 공기업 최초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여수광양항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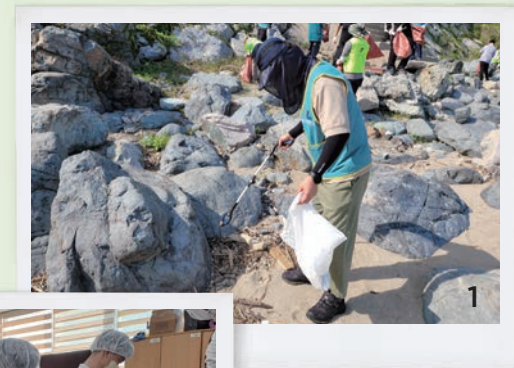


전남 공기업 중 최초 나눔명문기업

지난 7월 22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가 전남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기업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진행한 가입식에는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명문기업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로써 전남에는 세 번째 나눔명문기업이 탄생했으며, 특히 전남 도내 공기업 중에서는 최초다. 가입식에서 박성현 사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펼치며 지역민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은 “22년간 꾸준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감사드리며, 전남 사랑의열매도 사회 공헌 사업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가입식이 마무리되었다.

사회 공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남 사랑의열매의 인연은 200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희망2022나눔캠페인 전남 동부권 제막식에서 3,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사랑의온도탑에 온기를 더하는 등 전남 동부권 지역을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했다. 이렇게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누적 기부액은 총 3억 1,000여만 원에 달한다. 성금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생계비, 치과 치료, 명절 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도심 in 스마트 팜 사



1 월 1회 '전남 동부 연안 정화의 날'을 지정해 민관 합동 해양 폐기물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2 전문 제과·제빵 기술 교육과 판로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파티시에 점프 업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펼치며 지역민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업을 전개하는 데 사용했다. 특히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향후 3년간 5억 원의 성금을 약정하며 한층 폭넓은 지원 사업을 논의 중이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역민·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치 창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 상생, 지역민 편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 계층 희망(愛)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나눔의 바다를 활짝 열어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회 공헌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2900호(중앙 366호)



남중이

“앞으로 남편과 딸, 아들이 나눔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전국 2908호(전남 133호)



심의섭 대성페차장 대표

“나눔으로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사람 냄새 짙은 여수시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 2932호(전남 134호)



박형엽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전국 2937호(부산 271호)



성도경 우성국제물류(주) 대표이사

“작은 용기가 작은 기쁨을 만들고 행복한 기적을 만듭니다.”

전국 2938호(경남 145호)



故 김기수 주식회사 김 전 대표이사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국 2939호(경남 146호)



김흥민 주식회사 김 대표이사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2941호(경북 144호)



김철식 前 군위군파크골프협회 회장

“건강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의 자그마한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습니다.”

전국 2942호(부산 272호)



송진홍 한일건설(주) 회장

“나눔, 배려, 감사.”

전국 2943호(대전 100호)



김숙영 에스팜(주) 대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국 2944호(광주 141호)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아너 가입을 시작으로 광주를 더 살기 좋은 따뜻한 도시로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2945호(부산 273호)



김창균 한국필아판매(주) 대표이사

“더 넓은 곳에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전국 2946호(부산 274호)



김동수 (주)미천환경 대표이사

“나눔은 관심과 사랑의 작은 등대 불빛입니다.”

전국 2947호(부산 275호)



이수계 (주)오선로직스 대표이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드립니다.”

전국 2948호(부산 276호)



윤철희 장미고무공업사(주) 대표이사

“은 세상에 장미 향이 깃들길 바랍니다.”

중앙회

스마트학생복 대리점, 해외 학생 위한 교복 기부

(주)스마트에프앤디(대표 송수만)가 운영하는 교복 브랜드 스마트학생복의 61개 대리점 점주가 20억 원 상당의 교복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적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아동·청소년을 위해 이뤄졌다. 재킷과 셔츠 및 블라우스, 바지 및 스커트, 니트 등 총 5만 7,000여 벌에 달하는 교복은 케냐·남수단·말라위·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몽골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에 참여한 스마트학생복 대리점 점주들은 “임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희망의 손길이 절실한 해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복을 지원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로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스마트에프앤디는 지난 2013년부터 사랑의열매와 손잡고 교복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아동·청소년을 지원해왔으며, 이번엔 대리점들이 직접 기부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한 (주)스마트에프앤디의 누적 기부 금액은 약 92억 원 상당이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석면 해체 공사에 35억 원 배분
 사랑의열매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석면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복권기금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기술 자문 및 컨설팅 지원 협조를 받았으며,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전국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지역아동센터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조성한 성금 35억 원을 활용해 공사비와 임시 공간 이용료, 대체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한국환경공단의

안전 진단 사업에서 석면이 검출된 시설 100여 곳으로, 위험도에 따라 석면 해체 및 보강 공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 7월 11일 경상남도 고성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공사를 시작으로, 지원 사업은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가 힘을 합쳤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주)숨시다, 아동 위한 방역 물품 전달

생활 위생용품 도매 및 제조 전문 기업 (주)숨시다(대표 조시훈)가 서울 사랑의열매에 2,700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기부하며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조시훈 대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이 상승했지만, 한편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2022년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 사업 전개

서울 사랑의열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및 장마철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민을 위해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사업을 전개하며 총 10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하며,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로 실직 및 휴·폐업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20만~10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부산



희망2022 이웃 돕기 유공자 표창 수여

부산 사랑의열매가 지난 7월 13일 희망2022 이웃 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희망2022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기부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쓴 개인 및 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 12명과 단체 6곳에 부산광역시 표창을, 개인 13명과 단체 33곳에 부산 사랑의열매 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주)아트앤디, 기획 행사 수익금 기부 협약 체결

(주)아트앤디(대표 진정호·강혜영)가 부산 사랑의열매와 행사 수익금 기부 사회 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주)아트앤디는 자사가 기획하는 전시, 페스티벌 등의 행사장에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설치하고, 행사 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예정이다. 진정호 대표는 “부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를 운영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 성금 2,500만 원 기탁
 지난 7월 25일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가 홀몸 어르신을 위한 성금 2,500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전용만)에 전달한 이 성금은 여름 이불 세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대구 관내 홀몸 어르신 500명에게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복지 서비스 위한 차량 지원
 대구 사랑의열매가 남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경승용차 3대를 전달했다. 총 4,900만 원 상당의 차량 구입비는 남구 2,000원 행복플러스 기금과 조영원 아너 회원의 기부금으로 조성했다. 전달한 차량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상담,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사업 지원 위한 연합 모금 진행
 인천 사랑의열매가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송도노인복지관과 함께 2022년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합 모금은 아동·청소년 심리 정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어르신 동화구연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총 1억 3,300만 원을 목표로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합 모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이·취임식 개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지난 7월 28일 제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인천광역시새마을회 김의식 회장은 “나눔문화를 선도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봉사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대 인천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엔 (주)제일텔레콤 정은섭 대표가 취임했다.

광주



착한 나눔 앞장서는 더 베스트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광주 사랑의열매가 지속적으로 나눔에 참여한 서남동 관내 착한가게 3개소를 더 베스트 착한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엄마네돼지찌개, 푸른안과의원, 유한회사 마한지 세 곳이다. 서남동행정복지센터 변만숙 동장은 “더 베스트 착한가게 선정을 축하드리며, 대표님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창영 교수, 아너 가입으로 나눔 동참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가 광주 사랑의열매 141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송창영 교수는 평소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나눔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아너 가입을 시작으로 광주가 더 살기 좋은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대전



가수 임영웅 팬클럽, 데뷔 6주년 기념 나눔 실천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with Hero 대전·세종’이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맞아 13만 3,720원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아동 양육 시설인 대전자혜원에 전달했다. 영웅시대 with Hero 대전·세종은 임영웅의 생일을 기념해 매년 616만 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에스팜(주) 김숙영 대표, 대전아너 100호 회원 가입
 에스팜(주) 김숙영 대표가 대전 사랑의열매 100번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대전 81호 아너 회원인 유엔약품(주) 이상열 대표의 배우자이기도 한 김숙영 대표의 가입으로 대전 사랑의열매는 15호 부부아너를 맞이했다. 김숙영 대표는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



BNK경남은행, 시원한 여름 나기 물품 전달

BNK경남은행(은행장 최흥영)이 5,650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BNK경남은행이 기탁한 선풍기 1,000대와 여름 이불 1,000채는 울산시 5개 구·군이 추천한 가정 2,000세대에 전달했다. 최흥영 은행장은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남초등학교, 아나바다Green나눔장터 수익금 기탁

강남초등학교(교장 김육년)가 울산 사랑의열매에 성금 105만 9,11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강남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저탄소 녹색 실천 및 서로나눔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아나바다Green나눔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김육년 교장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2022년 배분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지난 7월 20일 경기 사랑의열매가 2022년 배분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복지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배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했다.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된 총 129건의 공모작 중 11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소중한 아이디어를 추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

경기 사랑의열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추대패를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눔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도민이 서로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해피엔딩(주), 구리시 이웃 돕기 성금 기탁

장례 서비스 전문 기업 해피엔딩(주)(대표 박덕만)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구리시 이웃 돕기 성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해피엔딩(주)은 구리시 최초의 착한일터로 매월 4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구리시 나눔리더 1호 회원으로 개인 기부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박덕만 대표는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시애틀 영웅시대', 나눔 실천

가수 임영웅 팬클럽 시애틀 영웅시대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0만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애틀 영웅시대 회원들은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한국 방문 첫 일정을 기부로 시작했다. 성금은 포천시 장애인 자립을 돕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강원



2개 기관에 중장기 제안 기획 사업 지원금 전달

강원 사랑의열매가 중장기 제안 기획 사업에 1억 7,296만 8,410원을 지원했다. 중장기 제안 기획 사업은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연도 평가 및 2차 연도 심사를 통해 사업 성과를 인정받은 2개 기관의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는 아동·청소년 양육 환경 조성 사업을, 인제군사회복지관은 복지관 구축 사업을 내년 7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식 개최

지난 7월 27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2022년 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진행했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작년 한 해 동안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 법인, 지자체 등 총 15곳을 나눔 실천 유공자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신 기부자들과 파트너 기관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충북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지역 치안 강화 사업 업무 협약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며 충북 사랑의열매와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법용 CCTV와 LED 보안등 설치,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 어르신 안전 지팡이와 안전 조끼 지원 등을 실시하고 도내 치안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충북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

충북 사랑의열매가 지난 7월 28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명예 회장으로 추대하고, 충청북도지사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앞으로 도지사 임기 동안 충북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활동한다. 김 도지사는 위촉식에서 "충북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두루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



제너럴바이오(주), 손톱 관리 제품 기탁

기능성 원료와 바이오 신소재 물질을 개발하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제너럴바이오(주)(대표이사 서정훈·정석근)가 3억 원 상당의 손톱 관리 제품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전달한 물품은 손톱을 관리하며 기분 전환 또는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전북사회복지서비스원을 통해 전북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착한가게 3800호 탄생, 김제시 금산면 10개소 단체 가입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낙원가든, 헤이그라운드, 한어울가든, 원조시골집순대, 다리미삼겹살, 하나할인마트, 밥도둑계장마을, 삶이향기, 금태양전통장, 금동주유소 등 10개소가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했다. 이로써 전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는 3800개소를 넘어섰다. 서효연 금산면장은 "착한가게로 나눔의 물결이 이어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의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서천군 착한가게 14개소 단체 가입

충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8월 10일 서천군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더리터 서천특화시장점, 풍농농약사, 알파 서천점, 석호수산, 산정수산, 정희네수산, 만연숯불갈비, 만나수산, 지역 영상문화사회적협동조합, 금강마리나(주), 뷰티피부샵, 서천한우타운, 보고수산, 은혜수산 등 14곳이 착한가게에 동참했다. 이번 가입으로 서천군 착한가게는 108곳으로 늘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사랑의 쌀 전달식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서산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쌀 4,000포를 충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1억 원 상당의 쌀 4,000포는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서산시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김홍일 상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산 지역 이웃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과 지역 상생에 힘쓰는 모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남



(주)폭스에듀, 사회복지 종사자에 태블릿 PC 100대 지원

교육 전문 기관 (주)폭스에듀(대표 이종택)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태블릿 PC 100대를 기탁했다. 태블릿 PC는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은주) 회원과 자혜양로원 종사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용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은주 회장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2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사업비 배분

전남 사랑의열매가 2022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사업비 5억 8,710만 원을 배분했다. 사업비는 지난 5월 온라인 배분 신청을 통해 선정한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208개소에 전달했으며, 연극·요리·과학·독서 등 방학 특별 프로그램과 방학 캠프 및 가족 여행 등 정서적·문화적 프로그램, 신학기 물품 구입비 등에 쓸 예정이다.

경북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민 참여형 모금 캠페인 전개
 경북 사랑의열매가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 재원 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협약에는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주민 참여형 지역 문제 해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해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방낙지, 경주 착한가게 200호 가입
 경주 노동동에 위치한 조방낙지(대표 오진희)가 경주 착한가게 200호로 가입했다.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7월 28일 조방낙지 가게를 찾아 오진희 대표에게 현판을 전달했다. 오진희 대표는 "경주 200호 착한가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과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정을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경남



BNK경남은행,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사회 공헌 실천
 BNK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이 경남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8호로 가입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사회 공헌 활동비로 239억 원을 지출했으며, 5년 연속 200억 원 이상을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하며 경남과 울산 지역 곳곳에 희망을 전해왔다. 최홍영 은행장은 "사회 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마창대학교, 나눔명문기업 경남 7호 가입
 (주)마창대학교(대표 김성환)가 경남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7호로 가입했다. 경남 서부권과 김해·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시설인 (주)마창대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경남 사랑의열매 이웃사랑 성금 모금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대표는 "지역 복지 발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명품 대교가 되겠다"고 전했다.

제주



오영훈 도지사·김경학 의장·김광수 교육감, 나눔리더 가입
 지난 8월 제주 사랑의열매에 나눔리더 가입이 이어졌다. 107호로 가입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시작으로,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108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09호로 가입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각각 전달식을 열고 나눔리더 인증패를 전달했으며, 세 사람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무더위극복 쿨 키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무더위 Cool하게 행복 나눔 사업'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사업은 무더위와 열대야, 물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돕고자 기획했다.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을 통해 구매한 선풍기, 쿨 토시 등으로 구성된 쿨 키트 1,000상자는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세종



리봄화장품(주), 손소독제 2억 8,000만 원 상당 기탁
 리봄화장품(주)이 세종 사랑의열매에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 5만 7,000개를 기탁했다. 손소독제는 세종시 사회복지기관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했으며,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사용할 예정이다. 리봄화장품(주) 관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챙겨 쓰는 모범 시민이 많아져 세종시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더위 쫓는 여름 나기 물품 지원 사업 전달식
 지난 7월 21일 세종 사랑의열매가 무더위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여름용품 지원하기 물품지원사업 "쿨(Cool)~ 잠 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했다. 5,000만 원의 지원금으로 마련한 15만 원 상당의 서쿨레이터 130대, 인건 이불과 대나무 베개 200세트 등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30가구에 전달했다. 세종 사랑의열매 흥영섭 회장은 "시민들이 모은 성금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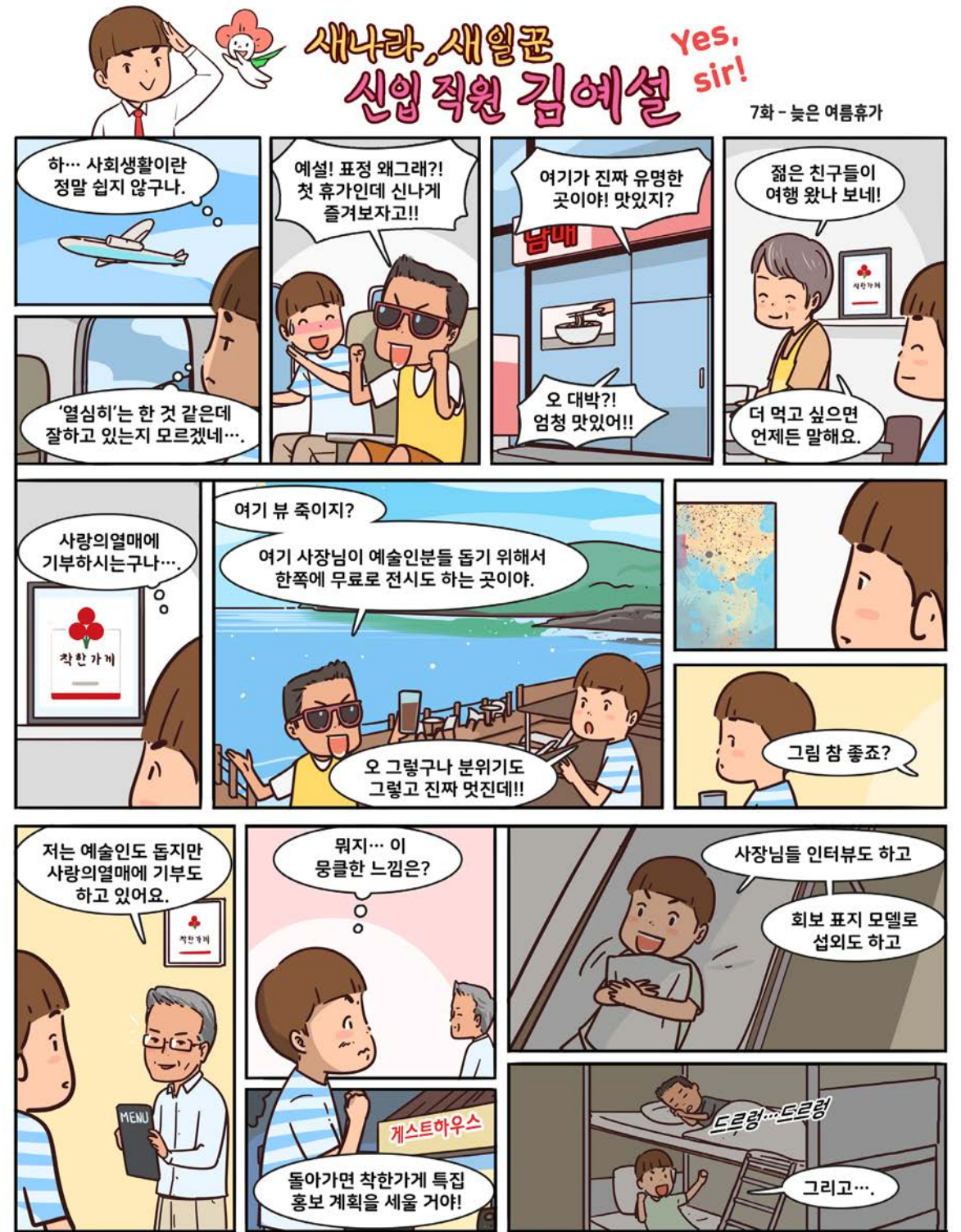
위기 이웃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합니다

절대적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큰 과제다. 하지만 사랑의열매는 묵묵히, 변함없는 자세로 우리의 이웃을 돕고 있다. 위기 이웃이 현실의 높은 장벽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고단한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며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중이다.



다른 그림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글·그림 오동진

다음 화에 계속...